

돌아온 K뷰티 ‘1세대’… M&A·유통망 다각화로 시장 재편

구다이글로벌, 스킨푸드 인수 협상
에뛰드, 다이소 전용 브랜드 출시
미샤, 북미서 BB크림 매출 급증
토니모리, 해외뷰티 행사초청 받아

국내 K뷰티 시장이 다시 한 번 판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신형 인디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이 활발한 가운데, 전통 1세대 브랜드들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K뷰티 전문기업 구다이글로벌이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에 속도를 낸다.

최근 투자 시장에서 구다이글로벌은 오리지널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 ‘스킨푸드’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구다이글로벌은 사모펀드 운용사 더함과 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매각을 추진한 파인트리파트너스와 계약을 협상한다. 인수가 약 1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1세대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광



에뛰드 다이소 전용 브랜드 ‘플레이 101’ 신제품.

/아모레퍼시픽홀딩스

고 문구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왔다. 다만 지난 2019년 회생절차를 밟으며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이후 스킨푸드는 2022년에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흑자 전환하는 등 수익성을 개선했다. 2023년 매출 589억원, 영업이익 89억원을 기록하고, 2024년 매출 780억원, 영업이익 104억원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구다이글로벌은 스킨푸드를 인수함으로써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

보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티르티르, 스킨1004 등 해외에서 K뷰티 주자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을 연달아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스킨케어 브랜드 라운드를 운영하는 서린컴퍼니 인수했다. 그 결과, 구다이글로벌은 연매출 1조원 돌파 가능성을 높이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우선, 구다이글로벌은 지난해 실적으로 3237억원의 매출과 140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기존 주력 브랜드인 한방화장품 ‘조

선미녀’ 판매호조에 힘입은 성과다.

색조 브랜드인 티르티르는 2024년 매출은 2736억원, 영업이익은 391억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스킨1004의 매출은 2800억원, 영업이익은 770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321%, 571% 급증해 스킨1004는 5년 연속으로 실적을 경신했다. 서린컴퍼니의 경우, 지난해 매출 1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성장했다.

또 다른 1세대 로드숍 브랜드들은 독립 브랜드로서 국내외에서 K뷰티 경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자회사인 에뛰드도 국내 대표 로드숍 출신 브랜드다.

에뛰드는 최근 다이소 전용 브랜드 ‘플레이 101’을 공개하며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색조 브랜드 노하우를 담아 다양한 색상과 제품군으로 구성된 총 25종의 신제품을 내놔다. 유통망 다각화 효과뿐 아니라 MZ세대 등 폭넓은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북미 시장을 공략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거두고 있다.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뷰

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에 따르면, 미샤 대표 제품인 BB크림 제품군 매출은 올해 3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전년 동기 대비 428% 커졌다.

또 국내에서는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다양한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미샤는 지난 3월에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고를 올린 스테디셀러 제품을 3300원 등 균일가에 선보이기도 했다.

토니모리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2025 엘타 뷰티 월드’에 초청받았다. 이 행사는 북미 최대 뷰티 유통사인 엘타 뷰티가 주관하는 것으로 매년 200여 개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국내 뷰티 브랜드 기업의 관계자는 “K뷰티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청신호를 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독자 브랜드의 독립성과 K뷰티 브랜드만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중흥건설, 총수 2세 경영권 승계위해 3.2조 부당지원

공정위,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10년간 PF보증 24건 무상지원
‘12억 중흥토건’ 대기업으로 키워

기업집단 중흥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동일인) 2세 회사에 10년 간 3조2000억원 규모 부당 대출보증 등을 지원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과 중흥토건 6개 계열회사의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장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한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장선 회장이

취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로,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한 중흥토건에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수 2세 정원주가 중흥토건을 인수한 2007년 회사가치는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지역 건설사였으나, 중흥건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해 왔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

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자금보증약정 등 신용보장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부당 지원 결과, 중흥토건과 6개 계열회사는 손쉽게 조달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

해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수취했고, 중흥토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이후 2024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지분가치가 약 12억원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이 17년 만에 자산총액 5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페루 대통령 수여, 정부 최고 환경상 수상(2025. 1.)
노벨사이언스 세계평화봉사대상 수상(2024. 12.)

하나님의 교회 설립 61주년

2025 희망과 포용의 내일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더 큰 품으로 세계를 담고 새 희망의 역사를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175개국 392만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가족으로 품어 안으며
화합과 평화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watv.org

한국을 방문한 제82차 해외성도방문단이 2025년 글로벌 문화행사에 함께해 세계인의 희망을 응원했다.